

##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함

2018년 4월 1일 이현래 목사님 주일말씀

오늘 제목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함>이라고 했는데, 오늘이 부활주일이니 영감이 좀 통하는 모양이다.

로마서 6장 4절부터 읽겠다.

### [로마서 6:4~6:8]

“4.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6.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8.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중요한 성경 말씀이니까 집에 가서도 많이 읽어보기 바란다.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롬6:4).**” 이 말만 해도 대강 아실 것이다.

옛 생명과 새 생명, 옛 생명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 왔던 유전적인 우리 삶을 말한다. 선악과를 먹고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대로 가시밭 길을 걸어서 걸어서 바벨론으로 간 이것이 옛 사람이다.

바벨은 거역이라는 뜻이고 혼잡이라는 뜻이다. 거역해서 나와서 마지막에는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서 흩어지게 되었다고 성경에 써있다.

우리 인류의 운명을 예시해놓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그 길은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바벨론으로 가는 길이였다. 그 간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종착역은 바벨탑을 쌓으러 가는 길이다.

세상을 보면 여러 가지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많이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취하면 안 되는 이유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가든지 간에 종착역은 바벨탑을 쌓으러 가는 것이다. 우리 이름을 빛내자. 하늘에 오르자. 뭉치다. 이것이 세상 표어다. 어떻게 갔든지 간에 성공을 하면 무엇이 되는가?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알면 세상을 아는 것이 간단하다. 이것은 좋은 것이다. 저것은 나쁜 것이다. 싸우고 서로 자기가 옳다고 한다. 옳든지 그르든지 간에 종착역은 다 바벨탑이다. 어디로 갔든지 간에 어디로 출발했든지 간에 어떤 모양으로 갔든지 간에 결국은 바벨탑이다.

## 이 옛 생명을 처리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이다.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요즘 적폐청산이라는 말이 한국에서 가장 두드러진 말이다. 대통령까지 적폐청산에 걸려서 전직 대통령들이 2명이나 구금상태에 있다. 적폐청산을 위해서. 쌓인 폐단을 청산한다, 누적된 폐단을 청산하다는 말이다. 옛 것을 처리하고 새 것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잘 되었으면 좋지만 잘 될지 안 될지는 뒤에 가봐야 안다.

인류역사가 오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렇게 해 왔다. 전에 것은 다 치우고 새로 하고 또 다 치우고 새로 하고 늘 했다. 앞으로도 한 번 했다고 끝난다고 생각할 수 없다. 다음에 또 해야 된다.

옛 생명이 처리되지 않는 한 어떻게 해도 바벨론이 된다. 정말 맑은 물을 만들어놓는다고 해도 시간이 가면 썩는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성 상 어쩔 수 없다. 뭘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본성 상 그렇다. 물은 고여 있으면 썩기 마련이다. 동물은 죽으면 썩기 마련이다.

그것이 다 정해진 길이기 때문에 아담의 길은 가장 간단하게는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그렇게 해서 성경의 한 단원이 끝난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로 끝났다.

그런데 가인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아벨은 계시록에 가면 제단 아래서 신원하고 있다고 나온다. 신원한다는 말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말이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죽었습니다. 이 원수를 갚아주시시오, 이렇게 호소하고 있다.

지금 세상을 보면 꼭 그렇다. 약한 자는 당하게 되어있고 당하면 원망하게 되어 신원하고 있다. 뒤집었다 앞었다 하는 동안에 서로 원수 갚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다.

중국사람들은 원수 갚는 일을 계속 했다.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들은 철학이 좀 다르다. 만만디고 그날이 그날이라고 생각한다. 하도 전쟁을 많이 해서 이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이날이다. 경상도 살다가 충청도 살 수도 있고, 충청도 살다가 전라도 살 수도 있는 것이다.

충주 지방을 가면 옛날에 삼국이 만나던 곳이다. 언제 신라가 올지 언제 백제가 올지 언제 고구려가 올지 모르는 지역이다. 그래서 충주 사람들은 좋다는 말도 별로 없고, 나쁘다는 말도 별로 없다.

교통사고가 나서 운전기사 둘이 길가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둘이 맞부딪친 사람들이다. 그런데 길가에 앉아서 노닥거리고 있다. 대구 같으면 샷대질하고 난리가 날 텐데 천연스럽게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런 광경을 보기 참 어렵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삼국이 교차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어디로 편 들 수도 없고 이리로 갈 수도 없고 저리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조건이다.

중국사람들이 그렇게 된 것이다. 삼국지를 보면 그렇다. 여러 나라들이 있어서 서로

패권을 다투니까 이 넓은 땅에서 어디로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 갈 수가 없다. 오늘 이 쪽에서 오고, 내일은 저쪽에서 오니까 성이 있다고 하지만 성이라는 것은 전체 땅을 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만 싸여있는 것이다. 이 나라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그게 그거고 싸우는 사람들끼리만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사람들은 그렇게 만만디가 되고 말았다.

옛 생명을 처리하는 문제는, 적폐청산을 하는 문제는 인간성을 처리해야 되지 정치적인 것을 처리한다고 다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처리하고 나면 또 나온다. 똥 누고 나면 또 나오지 한 번 누었다고 안 나오는 것이 아니다. 늘 먹으니까 또 나오게 되어있다. 그런 줄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옛 생명을 처리한다. 이것이 어디에 와서 결정에 이르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결정에 이르렀다. 우리는 그 죽음 안에서 같은 모양으로 함께 죽음으로써 우리 안에서 청산된다는 뜻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어렵게 생각되지만 아주 쉽고 간단한 문제이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안에서 함께 죽으면 우리 옛 사람의 적폐가 다 없어지고 끝난다. 이것을 할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겠는가. 되지만 한다면 이보다 더 쉬운 방법이 없다.

오늘 되는 이야기를 하겠다. **이 일을 시작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었다.** 바벨탑을 쌓는 세계 속에서, 바벨탑을 쌓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이렇게 하라고 고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교훈을 주어서 살리는 것이 아니고 불러내었다.

너는 거기서 나오라는 것이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한 곳으로 나오라는 것이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도 똑같다. 인구가 200만이 되니까 많은데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을 가지고 애굽을 고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불러내었다.

출애굽은 불러낸 것을 말한다.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는 이 말과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가자는 말과 같은 말이다. 같은 뜻이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그냥 세상에 있었던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 여러분은 무슨 방법으로든지 불러내어서 온 사람들이다. 불러내어서 온 사람이 아니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바꿀 줄로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

불러 나와서 뭘 하는 것이다. 애굽에 있으면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 일제하에 있으면서 신사참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면마다 신사당이 있었다. 우리 동네가 소재지이기 때문에 우리동네에서 제일 높은 곳, 온 동네가 다 보이는 곳에 신사당이 있었다. 내가 다니던 교회가 거기를 차지해서 쓰게 되었다. 종교 재산은 종교로 돌린다는 귀속제라는 재산 처리법이 있었다. 거기에 따라서 교회를 거기에 세웠다.

일제하에 있으면서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려면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반대를 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는 줄은 모르겠는데 옥에 갇히기도 했다. 고신 측에서 자랑하는 것이 순교자의 정신을 따르겠다는 것이다. 주\*\*목사님이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옥에 갇혀 있다가 나왔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겠다고 하여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상종하지 않겠다고 하고 갈라진 것이 고신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었다. 우리가 불러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나에게 나오라는 말이다. 그 세계에서 나오라는 말이다. 거기서 네가 어떻게 해보라는 것이 아니라 나오라는 뜻이다.

나오고 나면 일이 쉽다. 나오지 않고 거기서 뭘 하려고 하면 어렵다. 일제하에 있으면서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렵다. 가령 조선시대에 있으면서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것은 어렵다. 그 시대에 그 속에 있으면서.

천주교가 들어와서 제사를 지내지 않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 줄 아는가? 목이 잘려 죽은 사람이 수없이 많다. 서울 한강변에 가면 절두산이라는 산이 있다. 절두라는 말은 모가지를 자른다는 말이다. 강가에 얹혀놓고 목을 잘라버렸다. 그것이 절두산이다. 여기 팔공산에서 순교 묘지가 있다.

일제하에 있으면서 신사참배를 하지 않기 어렵고, 조선시대에 있으면서 조상 제사를 지내지 않기 어렵다. 불가능하다. 고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거기서 따로 나오라는 것이다. 나와야지 거기에 있으면서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해서 조선이 바뀌어지는가? 거기에 있으면서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다고 일본이 바뀌어지는가? 바뀌지지 않는다.

**나와야 된다. 안 되면 나와야 된다.** 잘된 사람들은 나오지 않는다. 제일 먼저 나온 사람들은 누구인가?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나왔다.

조선 말기에도 선교사들이 와서 불러내었다. 왜냐하면 아무도 오지 않으니까. 심지어는 쌀자루를 가지고 와서 사람을 사왔다고 한다. 어디에 가서? 가난한 집에 가서. 그때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입하나 막는 것이 굉장한 문제였다. 쌀자루 하나 가지고 가서 딸이고 아들이고 달라고 하면 팔아먹는다고 생각하고 주었다. 왜? 가면 밥이라도 굶지 않으니까. 그렇게 가난했다.

그렇게 팔려 갔던 사람들이 배제학당에 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미국에 가서 유학하고, 돌아오니까 뭐가 되었는가? 유명인사가 되었다. 나온 사람이 그렇게 되지 거기에 눌러 붙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된다.

종가 집이나 잘사는 집에서 콧방귀나 끼겠는가? 양코배기들이 와서 나오라고 하면 나오겠는가?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딱 맞다. 나는 불러내니까 얼씨구 좋아서 나왔다. 갈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here를 탈출할까 하고 있는데, 누가 불러 주는 사람이 없어서 탈출할 수가 없었다. 방법이 없어서 탈출을 못했다.

생각해보라. 장사하다가 밀천이 떨어지니까 아침에 밥 먹고 나면 가게 문을 열 수가 없다. 앞집 사람이 뻘히 보고 있다. 다 아는 사람들이고 매일 보는 사람들이다. 거기서

빨리 빠져 나가서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가서 하루를 지내고 왔다.  
그러니까 나를 불렀을 때 얼마나 내가 반가웠겠는가. 어찌 될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고, 일단 그 동네에서 나와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다. 갈 데도 없지만 부끄러워서 나올 수도 없다. 그런데도 불렀으니까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아브라함도 하라고 한 것을 보면 내 처지와 비슷했을 것 같다. 잘 나갔으면 안 갔을 것이다. 갈대아우르에서 나와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 와서 머물렀다. 거기서 부름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나온 것은 아니고 아버지 대부터 나오기 시작하여 나오게 되었다.

부름 받은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부름 받고 응답 받은 사람은 거꾸로 복된 사람이다. 갑자기 달음질 하다가 뒤로 돌아 하면 맨 꼴찌가 1등이 되는 것이다. 그런 격이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다.

내가 서울을 올라온 후에 동네의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왔다. 내가 서울로 맨 먼저 올라온 사람이 되었다. 내가 맨 먼저 올라올 용기가 있는 사람인가? 전혀 그런 용기가 없는 사람이다.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맨 먼저 왔다. 뒤로 가보니까 몇 년 후에 결혼식에 가보니까 모두 서울에 와 있었다. 내가 선구자가 되었다. 참 희한한 일이었다. 세상은 참 희한하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세히 보면 너무너무 재미있고 신기하다. 어떻게 꼴찌를 1등을 만들어 주는가? 꼴찌가 1등 되는 세계는 세상에는 없다. 재미있는 인생극장을 보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봐야 한다.

우리 교회가 왜 재미있는 줄 아는가? 그것 때문에 재미있다. 거꾸로 가기도 하고 바르게 가기도 하여 예측불허하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 줄 몰라서 재미있다. 다 각본을 짜서 하면 무슨 재미가 있겠는가? 아무 재미가 없다.

저 사람이 저렇게 되었네, 이러니까 재미가 있다. 그 사람은 당연해, 그러면 시시하고 재미도 없다.

아브라함은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다. 부름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부름 받은 모든 사람은 모두 아브라함 안에 있다. 새 생명을 시작하기 위해서다.

### **두 번째는 이삭을 주었다.**

전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100살에 이삭을 주셨다. 이것도 역시 재미있는 것이다. 이삭이라는 말이 기쁨이라는 뜻이다. 너무너무 엉뚱한 일이다. 100살 먹은 사람이 아들을 얻었다고 하면 놀랍고 재미있는 일이다. 넘어져서 뒤 꼭지만 다치지 않으면 아주 재미있는 일이다.

**새 생명을 주실 때 그렇게 주셨다. 우리 같으면 옛 생명을 고쳐서 새롭게 만들려고 할 것이다. 그것 밖에 길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고 옛 생명을 처리하면서 전혀 다른 것을 주셨다.**

이스마엘까지도 처리하고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될 것이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예, 감사합니다.’ 하고 믿었다는 것이다.

이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한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10년을 기다렸다가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집에서 길리운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했더니 아니다, 네 몸에서 난 자가 네 후사가 될 것이라고 하시니까 듣고 보니 정말 좋은 것이다. 종을 양자 삼는 것보다 자기 몸에서 낳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아멘하고 믿었던 것이다. 이것을 의로 여겼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사람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라는 아주 귀중한 자료로 사용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도 한계가 있다. 분명히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는데 이스마엘을 낳았다.

오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의 하나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것이다. 종교개혁의 가장 중대한 깃발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다.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참 좋다. 우리가 어떻게 행위로 의롭게 되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이다. 어떻게? 아들을 믿으면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이다.

칼빈은 법률가였다. 법률가니까 주고 받는 것이 생긴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준다. 벌금을 내면 어떻게 되는 것이 법률이다.

예수를 믿으면 그 대가로 우리는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대부분이 다 믿고 있다. 이것은 그 단계에서는 참 좋은 것이지만 한계가 있다. 이삭을 받기까지는 안 된다. 이삭을 언제 받았는가? 그 믿음까지도 완전히 없어지고 난 후에 받았다.

100살이니까 아기를 낳을 소망이 있겠는가?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하는 말이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니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도 하나님도 어이 없는 분입니다. 사라도 저 장막 뒤에서 어이가 없어서 웃었다고 한다.

율법으로 본다면 그리고 옛날 생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노발대발 할 것이다. 하나님이 와서 말하는데 ‘말이 됩니까?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렇지 너무 하십니다.’ 그랬을 것이다. 옛날 같으면 큰일난다. 만일 그것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그렇게 했으면 대번에 벼락 맞는다.

그때는 하나님도 책망하지 않고 기다려 보라고 하셨다. 하나님도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을 잘 아신다. 알고 하신 말씀이니 아브라함이 못 믿어도 상관없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떨어졌다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망할 수 없다. 믿음이 전혀 없을 사람에게 믿으라고 하겠는가? 그러나 믿음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면 가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때는 아예 믿음을 가질 수 없었

다. 하나님이 네 말이 맞지만 내가 주는 것은 네 행위나 믿음 때문에 준 것이 아니고 내 특별한 필요가 있어서 주는 것이라는 말이다.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지 아브라함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받게 되었다. 이것도 재미있다. 야곱은 아주 교활하고 간사한 사람이었다. 쌍둥이였는데 먼저 나오려고 하다가 나오지 못하고 뒤에 나온 아들이다. 기어코 형의 축복을 뺏아서 아람으로 달아났던 사람이다.

야곱은 야심도 많고 욕심도 많고 잔꾀도 많고 머리도 잘 굴리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연단하여 바로 앞에 세웠다. 아주 훌륭한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을 세웠다. 정말 인간성이 안 된 이런 사람을 연단하여 바로 앞에 세우게 되었다.

바로 앞에 세웠을 때 야곱은 내 나이 130인데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평탄했다는 말이 아니다.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연단의 과정을 말한다. 밧단아람에 가서 자기보다 더 머리가 발달한 라반을 만났다. 외삼촌이자 장인어른인데 그 사람을 만나서 계속 경쟁을 하다가 결국은 당했다. 얼마나 힘이 들었겠는가? 자기도 한 가락 하는 사람인데 두 가락 하는 사람을 만나서 애를 먹은 것이다.

이것이 극적으로 표현된 곳이 압복강이다. 자기 떼를 먼저 앞으로 보냈다. 먼 사람부터 앞으로 보냈다. 그리고 제일 가까운 사람은 제일 나중에 보냈다. 왜? 앞에 있는 떼가 상하면 뒤에 있는 사람은 도망가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나 잔 머리를 잘 굴리는가? 그리고 자기는 강을 건너지 않았다.

그런 사람인데 밤에 누가 와서 붙잡고 씨름을 한 것이다. 야곱이 씨름한 것이 아니라 누가 와서 야곱을 넘어뜨리려고 했다. 야곱은 얼마나 꺾이 많던지 밤새도록 씨름을 해도 넘어지지 않았다. 새벽이 안 되겠으니까 이 온 사람이 환도 뼈를 찢다. 환도 뼈가 부러지니까 그때서야 야곱이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하고 붙들었다는 것이다. 그 야곱의 인생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살다가 왔으니까 한다는 말이 내가 130살에 험한 인생을 살았다고 한 것이다. 아주 재미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고약한 사람이기도 하다.

### **그리고 야곱 다음에 요셉이 나온다.**

요셉은 야곱의 연장이다. 야곱이 그런 사람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세상을 통치한 것은 요셉이다. 그래서 야곱과 요셉은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적폐청산을 하는 길이다. 불러내어서 새로 아들을 주시고 그 다음에 통치자를 만드시는 것이다. 적폐와 싸운 것이 아니고 거기서 비비고 볶은 것이 아니라 거기서 불러내어서 적폐를 청산한 것이다.

적폐는 적폐대로 가는 것이다. 너희는 너희들끼리 잘해 먹으라고 하고 새로운 것으로 전혀 새로운 것으로 적폐를 청산했다. 물을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새 물을 주셔서 구정물을 가지고 새로 만들려고 하지 않고 새로 물을 주셨다. 이것을 알면 얼마나 통쾌한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면 너무너무 통쾌한 일이다. 우리 인생이 하는 것은 얼마나 웅색한지 모른다.

지금 적폐청산을 하면서도 서로가 불안할 것이다. 만일에 정권을 놓치는 날이면 또 당할 것이다. 하면서도 멍청한 사람이면 모르고 하는 것이고 좀 머리가 트인 사람이면 속으로 불안할 것이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털면 누구라도 조금이라도 나온다. 언제 또 자기가 당할지 모른다. 그런 세상에서 나오라는 것이다.

신약에 오면 아들이 왔다고 한다. 아들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거친 사람이다. 불러내고 새로 주시고 연단해서 바로 앞에 세웠던 그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그냥 족보 없이 온 것이 아니다. 다 족보가 환히 있다. 예수는 족보 없는 사람이 아니다. 족보가 확실하게 있다.

이 사람이 나오기 위해서 처녀에게 잉태되어 나왔다.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것은 우리 인간 상식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말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보면 처녀에게서 잉태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왔다. 이것은 처녀에게서 잉태한 것이다. 백 살 먹은 남자에게서, 아흔아홉 살 먹은 여자가 애기를 낳았다는 것은 처녀가 애기를 낳은 것이다.

처녀가 애기 낳은 것이 쉬운가? 아흔아홉 살 먹은 노인이 애기 낳는 것이 쉬운가? 어느 것이 더 쉽겠는가? 처녀가 애기를 낳는 것이 쉽다. 처녀는 어떻게 해서든 애기를 낳을 수가 있다.

그런데 아흔아홉 살 먹은 사람은 무슨 수를 써도 애기를 낳을 수 없다. 처녀는 법률적으로 율법에 따라서 애기를 못 낳는 것이지 율법을 어기면 낳으려면 낳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사라는 율법 위에 무엇이 온다고 하더라도 낳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삭을 낳았다고 한다.

**예수가 어떻게 오는가를 보라. 다말로, 라합으로, 룻으로, 밧세바를 거쳐서 왔다.** 이 사람들이 알고 보면 쓸모 없어서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들이다. 거룩한 족보에 끼여 있다는 것은 넌센스다.

다말은 누구인가? 자기에게 후사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시아버지 아들을 낳은 것이다. 라합은 누구인가? 이방 기생이다. 거기서 살아봤자 이방 기생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나오는 것이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하면 지시할 곳이 어디인지 몰라도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한다. 기생 팔자를 바꾸려면 떠나야 한다. 그래서 나온 것이다.

룻이 누구인가? 모압과 암몬의 자손이다. 이것은 영원히 상종하지 못할 사람으로 정해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난 다음에 '아 나는 아무리 살아도 모압과 암몬의 자손을 벗어날 길이 없겠구나' 모압과 암몬의 자손이 누구인가? 딸이 아버지와 상관해서



낳은 후손이 모압과 암몬이다. 거기서 아무리 잘되어도 모압과 암몬의 자손이다. 거기서 왕비가 된다고 해도 모압과 암몬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나왔다.

밧세바는 왜 그리 되었는지 아는가? 그것이 이유가 다 있다. 이 남편이 전쟁밖에 모른다. 도무지 전쟁밖에 모른다.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 남편에게 소망이 없는 것이다.

마리아는 처녀라고 했다. 이런 사람이 처녀다. 올 데 갈 데 없는 한 가지 밖에 없는 이 사람이 처녀다. 달리 길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처녀다. 여기서 예수가 나왔다. 성경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신기하다.

우리 역사 같으면 부끄럽다고 이것은 다 없애버렸을 것이다. 내 족보에 이런 여자가 있어서 내가 왔다고 하면 부끄러워서 그 족보를 가지고 있겠는가? 다 없애버리고 불태워버릴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역사를 당연하게 써 놓았다. 왜? 룯이 누가 되었는가?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었다. 왕이 되고 나니까 갑자기 여자가 부상한 것이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니까 마리아가 갑자기 부상한 것이다. 유명한 여자가 아니다. 이 사람들은 특이하게 신성한 족보에 들어와 있다.

### 예수님이 와서 무엇을 했는가?

적폐청산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단계에 왔다. 아들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했다. 그 이적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늘에서 온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만한 이적들을 행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특이한 사람이다. 이 특이한 사람을 생각할 때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 봐야 하는가? 아담이 동산에 있을 때 사탄이 와서 뭐라고 했는가?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 하나님 같이 될 것이라는 말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다.

그는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 같이 되려고 노력을 한 것이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게 된 것이다. 그런데 예수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것으로 지금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적을 행했다. 그러니까 진짜다.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아들이 되려고 했을 때 얼마나 시행착오가 많았으며 엉터리가 많았겠는가.

지식으로 하나님같이 되려니, 아는 것으로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으니까, 무엇을 아는 것으로? 상대방의 눈의 티는 보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그렇게 눈이 밝아졌다. 그것으로 하나님 같이 되려는 것이다.

우리도 잘 생각해보면 그런 데서 조금 부끄럽다. 내 눈에 들보는 안 보이고 남의 눈에

가시는 보인다. 남에 눈에 있는 티가 도대체 어떻게 보이겠는가만 짐작으로, 눈을 깜박거리는 것을 보니까 티가 있나 보다 하고 짐작을 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른다. 전부 하나님들이 드러난다. 자기는 안 그런 사람인 것 같이 한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런 술책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이적을 행했다.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다. 우리가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 같이 되면 저것은 권모술수다. 저것은 술책이다. 다 안다.

그리고 뒤집어지면 도로 똑같으니까 금방 탄로가 난다. 절대로 나는 이러지 않는다. 절대로 나는 이라고 선언한 사람이 뒤집어지면 똑같다. 세상에서 그런 욕을 안 얻어먹을 사람은 정말 한두 명 밖에 안 되는 것이다. 공자님이나 석가모니나 이런 분밖에는 안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너무나 당연하게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가 아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데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만들어지는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뜨는데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되는가? 나면서 소경된 사람은 2천년이 넘어도 지금 안과의사도 못 고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랬다. 자고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눈을 뜨게 한 이가 없는데 이 사람이 누구인가? 했다. 그렇게 능력을 행했다. 이것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이다.

왜 이렇게 입증해야 하는가? 연합을 위해서 죽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상에 죽음이 많다. 공동묘지에 가면 다 죽음이다. 거기서 연합이 안 된다. 흙은 연합이 되지만 인간성은 연합이 안 된다. 죽어도 다 각각이다. 썩으면 흙이 되니까 흙은 똑같은데 육신은 똑같은데 육신이 아닌 인간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게 하나가 안 된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바로 이것을 청산하기 위해서이다. 죽어도, 죽어도 안 되는 것, 죽어도, 죽어도 연합이 안 되는 것, 분열을 청산하기 위해서이다.

**바벨탑의 결말은 무엇인가? 분열되었다는 것이다.** 다 말을 못 알아듣게 되었다. 이것을 청산한 것이다. 연합이 되어야 한다. 분열을 청산하기 위해서 죽음이 필요했다. 돌로 떡을 만들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이다. 돌로 떡을 만들 수 없는 사람으로 마귀를 물리쳤다. 전에는 능력을 행했는데 왜 지금은 마귀를 물리칠 때는 능력을 행하지 않았는가?

**능력을 행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을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이고 마귀 앞에서는 왜 그런 능력을 행하지 않았는가? 이것은 연합을 위해서이다.** 모든 사람을 포함한, 만

유를 포함한 죽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돌로 떡을 만들 수 없다고 했는데 마귀가 물러가더라는 것이다. 우리 같으면 몽둥이로 때려야 나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나는 돌로 떡을 만들 수 없다고 했는데 가버리더라는 것이다.

자기 거짓말이 폭로되었다. 네가 하나님 같이 될 것이라고 했던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폭로 되니까 부끄러우니까 가버린 것이다. 거짓말 하던 사람이 자기 거짓말이 폭로 되면 있을 수 없으니까 숨는다. 마귀가 물러갔다는 말은 그런 말이다. 마귀는 진실 앞에서 물러난다. 이것이 더 발전해서 십자가에 뛰어내리지 못한 사람으로 죽었다. 십자가에 뛰어내리지 못한 사람으로 죽은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다.

이 복음을 말했는데 사람 속에 이것이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고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아니지 예수님은 능히 뛰어내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안 뛰어내린 것인데, 이 목사는 갑자기 뛰어내리지 못한다고 하니까 예수를 무시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자기 예수는 그런 예수인지 모르지만 그런 예수는 우리를 구속할 수 없다. 그 예수는 나를 구속할 수 없다.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가? 내가 지금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새사람이 되는데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고 이 놀라운 이적을 행할 때 우리가 구속을 받지 못했다. 이것은 구속한 자리가 아니라는 말이다. 나를 원위치로 내 인격의 원위치로 돌리게 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나를 원위치로 돌리게 한 자리는 오직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그 자리이다. 이것을 버리면 절대로 구속이 없다.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속을 받았다면 그것은 다 엉터리이다. 나도 그런 것을 다 받아봤다. 받아봤는데 나에게서 아무 효과가 없다. 그냥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믿고 그렇게 해봤는데 나한테는 변화가 없다.

여기서 사탄의 속임수를 배제해야 한다. 돌로 떡을 만들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마귀가 물러갔다. 마찬가지로 뛰어내릴 수 있는 예수에게서 물러난 것이 아니고 뛰어내릴 수 없는 예수 때문에 물러났다. 그것이 진실이다.

눈을 제대로 뜨고 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는데 뛰어내릴 수 있는데도 저러고 있다. 이것이 맞는가? 뛰어내리지 못하니까 죽는구나. 이것이 맞는가? 누구 눈이 제대로 박힌 것인가? 생각해보라. 이것이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한 일이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한다. 참 이상하다.

나는 하다가 하다가 안 되어서 이것 밖에 길이 없어서 잡았는데, 잡고 보니 만민이 여기 포함되는구나, 만유를 포함한 죽음, 모든 사람을 포함한 죽음이다. 예수님이 혼자 뛰어내렸든지 참았든지 했으면 우리는 거기 포함될 수 없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자리

에 포함되겠는가.

내가 예전에 충주 있을 때 혼자 십자가를 생각해보니 암담하더라. 내가 만일 십자가를 질 자리에 이르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 감사하다고 받을 것인가? 아니면 모른다고 도망칠 것인가? 이때까지 예수를 믿어서 이 자리에 와서 도망가도 안 되고 감사하다고 받을 수도 없고 곤란하더라.

그래서 생각다 못해 이런 꾀를 냈다. 내가 십자가를 받을 자리가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억지로 붙잡아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때는 내가 좀 발버둥을 치더라도 다음에는 주님을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한 타협안을 내었다. 그러면 빠져 나갈 수 있으니까. 다음에 원망하지 않을 테니까 못 박을 일이 있거든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못을 박으십시오, 했다. 그래도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좋게 들으신 것 같다.

예수를 따라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순교자들이 있지만 순교자들도 아주 정확하게 꼭 그분을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할 수가 없다. 귀한 것이지만 그런 일이 어디 흔하게 있겠는가? 흔하지 않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못하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겠는가? 순교자들만 다 천국에 가고 순교 못한 사람은 못 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인가? 안 된다.

이 성경말씀을 자기로 생각을 해보라. 남의 일처럼 생각하니까 뛰어내릴 수 있는데 안 뛰어내렸다. 자기일로 한번 생각해보라. 내가 예수를 만나면 어디서 만날 것인가? 사람은 예수를 만나기 따라서 사는 것이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만나기 따라 살게 된다. 내가 어떻게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예수를 만난 사람은 평생 그 자리에서 산다.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야.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런 사람의 설교를 들어보면 계속 그 얘기를 한다. 예수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한 사람이다.

병자를 고친 데서 예수를 만나면 그 사람은 평생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다. 예수는 병자를 고치신 분이라고 대답을 갖고 있는 것이다. 설교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예수를 어디서 만났는지 그냥 알 수 있다. 자기가 만난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를 어디서 만날 것인가? 나를 구속할 자리를 찾아야 한다.** 그냥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 죽을 수 있냐 못 죽느냐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내가 지금 어디 서야 되느냐 내가 어떤 예수를 만나야 되느냐 이것이다. 사탄을 물리치고 인간을 구속할 때 그가 뛰어내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고, 그래서 인류를 구

속했다면 사탄이 물러간 것이 아니고 사탄은 계속해서 도전한다.

뛰어내릴 수 없는 사람을 내 놓고 보니까 도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사람이면 당연히 뛰어내리지 못할 것이 아니겠는가? 뛰어내리지 못한 사람을 놔두고 뛰어내릴 수 있다느니 없다느니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사탄도 사람이 뛰어내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 더 이상 시험하지 않는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그렇지 않겠는가? 아브라함이 아이고 하나님도 너무 하십니다.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해도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뭐라고 말하든지 우리를 다 알고 있다. 여기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된 것이다. 뛰어내릴 수 없는 자리에 내가 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있다. 여러분이 뛰어내릴 수 있는 사람 같으면 그것이 무시되겠지만 내가 뛰어내릴 수 없는 사람으로 그것을 보니까 내가 너무나 반갑고 ‘아 저 사람 속에 내가 있네. 내가 잃어버렸던 내가 저 사람이네.’ 이렇게 된다.

불교에서는 잃어버린 자기를 찾고 있는 것이다. 나를 찾아 떠나는 길. 불교의 목표는 잃어버린 자기를 찾는 것이다. 무엇이 진짜 나인가 이것이다. 진짜 내가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계급장도 내가 아니고 성격도 내가 아니고 그런 것은 내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다.

참 내가 누구냐 이것이다. 진짜 나는 누구냐 이것을 찾고 있는 것이다. 평생을 찾고 있는 것이다. 찾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지 모르겠다. 몇 사람이나 찾았는지 잘 모르겠다.

우리는 간단하고 쉽다. 그 쉬운 사람을 놔두고 왜 다른 것을 찾느냐는 말이다. 다른 것을 찾으니까 어렵다. 안될 것을 찾으니까 어렵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를 보면 아이고 저기 내가 있네. 간단하게 깨닫게 된다. 이것이 불교가 평생 노력해서 얻은 도를 깨닫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 말을 듣고 다 알아듣게 되면 평생 참선을 해서 깨달은 것을 깨달은 것이다. 이것을 내가 말하니까 시시한 말로 생각하지 마라.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인생이 탁 바뀌어져 버린다.

내가 숨길 것도 없고 가릴 것도 없다. 그냥 그대로 공개가 되면 부끄러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자유로워진다. 이것은 인간 본성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지었는가? 처음에 지어 놓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던가?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찾으려고 하니 찾겠는가? 알아야 찾는다.**

송이버섯이 비싼 것을 알 텐데 산에 들어가면 송이버섯이 있는 곳이 있다. 그런데 모

르는 사람은 아무리 가도 못 찾는다. 아무리 찾아도 없다. 어떤 사람은 가서 따온다. 나는 처음에 송이버섯이 어디 나와 있는지 알았다. 그러면 가면 따면 되는데 나와 있지 않고 흙 속에 갇혀 있다.

전문가들밖에 모른다. 약간 흙이 들려 있다고 한다. 소나무 밑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다. 옛날에 000형제 아버님의 농장이 있는데 그 위에 산이 있다. 거기서 버섯을 따서 국도 끓여 드시고 하셨다. 우리가 한번 가서 버섯찌개를 먹어 봤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전문가만 찾는다. 전문가들은 찾아낸다.

적폐를 청산하려면 아들 안에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그 진실한 사람 안에서 우리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우리가 달고 있던 훈장, 계급장 그것을 청산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 청산할 방법이 없다.

다 중요한 것인데 청산 할 수 없다. 더 중요한 것이 생겨야 청산할 수 있다. 이 사람을 못 보고서 인간을 바꿀 수 없다.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없다. 참된 사람을 보지 못하면 바꿀 수 없다.

진짜 기계를 모르고 고장 난 기계를 고칠 수 없다. 고치면 더 망가져 버린다. 옛날에 라디오를 사용할 때 라디오 방에 고치러 갔다 주면 더 망가져서 나온다. 전문가들이 아니고 동네에서 그냥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원형을 모르는데 어떻게 고치겠는가? 원형을 알아야 고친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와 연합된다. 이것을 보고 포함한 죽음이라고 한다. 나를 포함하고 죽었다. 예수님은 혼자 죽은 것이 아니다. 그 죽음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는 공자님 안에도 그 나를 발견할 수 없다. 석가모니 안에서도 그 사람을 내가 찾을 수 없다. 석가모니를 보면 염화시중의 미소다. 찡그리고 있는 부처님을 본 적 있는가? 없다. 눈을 뜰 듯 말 듯 하면서 뜬 것도 아니고 감은 것도 아니다. 그 상태로 있으면 자기는 굉장히 만족한 것이다.

내가 절에서 스님과 있어보니까 오전은 내내 참선을 한다. 아침을 먹고 점심때까지 참선을 하는데, 참선하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 얼굴이 흰하다. 아주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 맛으로 참선을 하는 것이다.

자기 혼자 편하려면 방법이 많다. 제일 편하게 사는 방법은 그런 암자에 중이 되면 제일 편하다. 아무 일도 없다. 참선하고 밥 먹고 자고 이것 밖에 없다.

어지간한 절에는 절에 토지가 있다. 거기서 나오는 것만으로 충분하고 정월이 되면 아주머니들이 광주리에 먹을 것을 이고 공들이러 온다. 그것을 가지고 일 년 내내 먹어도 된다.

세상에 그것보다 편한 것이 없다. 그리고 공기 좋고 물 좋고 먹을 것 있고 뭐가 걱정이겠는가. 내가 있던 절에는 최고의 물이 있다. 산꼭대기에 바위틈에서 물이 나오는

석간수인데 이것은 비가 오나 안 오나 전혀 관계가 없다. 일 년 내내 똑같다. 그런 물을 먹는데 병 걸릴 일이 있나 할 일이 있나 세상에 그렇게 편한 것이 없다.

돼지가 편하다고 하지만 돼지 편한 것과 비교가 안 된다. 나에게 같이 해봤으면 하고 이야기를 하던데, 나는 어려서 교회 다닌 것이 있어서 뭔지는 모르지만 아닌데, 이 생각을 했다.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모른다.

그래서 아이들을 주일학교에 보내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내가 만일 불교 유치원에 다녔다든지 했으면 절에 갈 수 있다. 그런데 교회를 다녔다. 중이 될 수는 없다.

**우리가 예수와 연합된다. 내가 예수와 연합하려고 아무리 해도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청산해야 한다. 내가 예수님을 모시려는 생각이 적폐청산이다.** 평생을 해도 안 된다. 그것이 계속 쌓이고 쌓인 것이다. 그것이 적폐다. 밖에 있는 것만 적폐가 아니고 내 내면에 있는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해도 안 될 것은 빨리 청산해야 한다.

사탄을 물리친 것은 능력으로가 아니다. 아니고 진실이다. 능력으로 사탄을 물리친다는 생각을 청산해야 한다. 내가 이러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것도 청산해야 한다. 나는 이러저러해야만 천국에 간다는 것도 청산해야 한다. 모두 청산해야 한다.

왜 그런가? 바울 서신의 중심 키워드가 있다. 그것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인데 이것이 바울 서신을 여는 키워드다.

기독교인으로서의 모든 축복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공유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우리가 분배 받았다고 할 수도 있고 같이 공유한다고도 할 수 있다. 그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축복은 없는 것이다. 다른 것은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다. 그 안에 없으면 그 축복은 없다.

“그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한다. 그를 떠나서는 천국에 가는 방법도 없고 구속 받을 방법도 없고 죄사함이라는 방법도 없다. 그 안에 없으면 예수 믿은 사람들이 한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욕을 얻어먹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한다. 예수가 나의 지혜이고 나의 의로움이고 나의 거룩함이고 나의 구속함이라는 것이다. 구속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거룩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가 없이는 아무 것도 없다.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이것이 바울서신에 있는 말씀이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바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이다.

무슨 방법으로 구속을 받았다,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런 소리하지 말고 오직 주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말이 정확한지 모르겠다. 우리는 부름 받아온 사람이니까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다. 그런데 나와서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옛날에 아무리 나를 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없었다. 그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려고 했지만 모셔지지 않았다. 그런데 십자가에 가니까 거기에 이미 내가 있다. 어떤 방법으로 있냐는 말이 없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다. 그냥 그 안에 있다는 것이다. 그 안에 있으면 같이 공유하는 것이다. 물속에 사는 고기들은 물속에서 물을 공유한다. 내가 일부러 가지려고 한 것이 아니다. 그냥 그 안에 내가 있는 것이다.

내가 그것을 갖는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그 지혜 안에 그 의로움 안에 그 거룩함 안에 그 구속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이다. 죄사함 따로 있고 의로움 따로 있고 한 것이 아니다.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은 저 밑에 있는 하수다. 의로움도 거룩함도 지혜도 구속도 모두 그 안에 있다.

**예수 한 사람이 받은 모든 축복이 바로 나와 함께 공유한다는 말이다.** 이것이 얼마나 쉬운 방법인지 모른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내셨다고 할 수밖에 없다.

세상에 어떤 선생에게 배워도 공자님 석가모니에게 배워도 이런 방법은 없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노력해서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다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미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것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만물을 창조해 놓고 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한다. 우리에게 창조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 눈을 떠보니 창조되어 있다. 눈을 뜨니까 세상이 있다. 우리가 지금 창조하는데 참여를 했나 창조하러 다녔겠는가 그것이 아니고 이미 다 있다. 전능자가 이미 다 만들어 놓았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속도 그분이 이미 다 만들어놓은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눈만 열면 된다. 눈만 뜨면 된다. 이것이 복음이다. 네가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하는 것은 율법이고 이미 다 만들어놓았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만들 수 없다. 사람은 만들지 못한다. 어떻게 나를 부끄러운 사람이 되게 만들겠는가? 어떻게 나를 원위치로 돌리겠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런 것이다. 내가 그런 것을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공부는 내가 해야 한다. 공부도 하나님이 다 해놓고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공부는 사람이 만든 것이니까 그렇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다. 명심하시기 바란다.

하나님이 한 것과 사람이 한 것이 구별되어져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따



로 있고 사람이 할 일이 따로 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사람이 해야 한다. 왜?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그렇다. 대학교를 누가 만들었나?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 만들었다.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대학에 들어가려면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은 공짜로 들어간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이다. 여기에 다 만들어놓았다고 알려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무엇을 시키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부활했다. 예수님의 죽음에서는 적폐를 청산했다. 죽음을 통해서는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적폐를 청산했다.** 우리 모든 생각을 다 지워버렸다.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는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하면 인간이 되는가? 어떻게 하면 형통하는가? 하는 이 모든 문제를 청산했다. 이것이 바로 적폐청산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와서 적폐청산 한다고 하고 있다. 이런 것이 언제부터 있었는가? 아브라함 때만 생각하더라도 아브라함 이후 지금까지 적폐청산 해서 왔는데 예수님에게 와서 한 방에 청산을 했다. 그 동안 방법이 여러 가지였다. 온전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적폐청산하기에 완전한 사람이 생겼다. 한방에 해결되었다.

과학기술도 엄청 발전했다. 콘덴서가 나왔을 때 굉장한 발견이었다. 이것 때문에 진공관이 다 없어졌다. 그래서 라디오나 이런 것이 전부 트랜지스터로 바뀌었다. 굉장한 것이었다. 그것도 집적회로가 나와서 더 간단하게 축소되었다. 여기에는 진공관도 트랜지스터도 없고 그냥 줄만 그어져있다.

그런데 그 간단한 것이 모든 역할을 다 한다. 지금은 그것도 한 단계 더 발전했다. 그것도 IC회로다. 과학은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복음도 이렇게 발전해야 될 것이 아닌가? 복음은 잘못하면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된다. 종교가 많아지면 더욱 복잡해지고 더 어려워진다. 간단해져야 된다.

**죽음으로 그냥 모든 사탄이 속였던 모든 것이 적폐 청산되어야 한다. 그 죽음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던 모든 것이 적폐 청산되어야 한다. 그러면 죽음 안에 뭐가 있는가? 연합이 생기게 된다. 그 연합 안에서 생명의 모든 것을 공유할 것이다. 연합되면 공유한다.**

세상에도 그렇다. 연합국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이다. 전쟁할 때 연합군은 미국에서 보내 온 시레이션, 그것을 먹고 전쟁을 한다. 스위스 사람이든, 프랑스 사람이든 상관없이 유엔군에 투입되는 모든 물자들을 다 공유했다. 마찬가지로 연합이 되면 생명을 공유한다.

그리고 부활한다. **죽음-연합-부활이다.** 왜 그런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기 위해서다. 부활도 보면 예수님 혼자 부활했다고 생각하기 쉽다. 혼자 부활한 것이 아니다. 죽을 실 때도 혼자 죽으신 것 같다. 혼자 죽은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한다.

‘아! 죽었네, 안 됐네.’ 이렇게 생각한다. 이것은 만유를 포함한 죽음이다. 내가 그 안에 있다. 그래서 내 대신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나를 위해 죽었다, 내 대신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 속에 내가 포함된다, 나도 같이 죽었다는 말이 된다.

아까 로마서에 있는 대로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출로 믿노니”** 내가 언제 같이 죽었는가? 그 죽음 안에 내가 있단 말이다. 예수님은 혼자 죽었고 혼자 부활한 게 아니라 만유를 포함하고 죽으시고 또 만유를 포함하고 부활하셨다.

조금 어려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그 안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다 들어 있다. 자기는 안 들었다고 우기는 사람도 다 들어있다. 아무리 우겨도 그 안에 들어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포함한 죽음이다. 이 말은 그 말이다. 이제 이해가 되신 모양이다.

부활한 후에는 그냥 예수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한다. 그리스도 예수! 부활한 후에 예수님의 칭호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한다. 왜냐하면 새로운 생명이니까, 연합된 생명이니까.

**연합은 우리에게 부활을 가져오게 된다. 그가 부활하니깐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 인류를 위한 새로운 주님이 생긴 것이다.

옛날의 주님은 누구였던가? 아담이고 사단이었다. 이제 우리의 주님이라는 말은 새 인류의 주님이라는 뜻이다. ‘아, 주님! 오 주 예수여!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할 때는 새로운 인류의 주님이다. 새 인류의 주님이시다. 옛 사람이 아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말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는 그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다. 나를 포함하고 죽은 분이고 나를 포함하고 사신 분이니까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다.

그냥 ‘주 예수여’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나의 새로운 주님, 참 주님, 그 주님을 내가 부르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 말은 그를 시인한다는 말이다. 나와 함께 죽은 그분을, 나와 함께 산 그분을 내가 내 주님으로 시인한다는 그 말이다.

‘이제는 당신이 주님입니다. 이제는 당신이 시작입니다.’ 그것을 내가 시인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다. 구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거기서 나의 적폐가 다 청산되고 전혀 나에게 없었던 새로운 것이 온다.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나에게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주님이다.

어제 저녁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을 몇 번이나 불렀다. 너무 새삼스럽다. 옛날에는 그냥 주님이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 내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새로운 세계에 들어서서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주님을 보고 있구나.’ 너무나 감격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옛날에 이 말은 듣기는 참 좋은 말인데 이게 실감이 잘 안 났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교회에서는 ‘오 주 예수여!’를 자꾸 부른다. ‘오~ 주 예수여!’ 밥 먹을 때도 부르고 화장실에서도 부르고 아무데서나 부른다. ‘오 주 예수여!’ 좀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고 좀 그랬다. 그래서 나는 안 했다. 어제 저녁에는 진짜로 그랬다.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새 생명이라고 하면 무엇이 새 생명인가? 새 생명은 연합으로 부활한 것이 새 생명이다. 연합해서 부활한 것이다. 나와 함께 부활한 것이 새 생명이다.** 새 생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만유를 포함한 예수의 죽음 안에서 만유를 포함한 부활이다. 그 말을 쉽게 말하면 나를 포함한 죽음에서 나를 포함한 부활이다. 이것이 새 생명이다. 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그가 우리를 포함해서 죽으셨다는 말이다. 새 생명은 연합된 생명이다.

계란에는 두 가지가 있다. 우리 송\*\*형제에게 질문하겠다. 두 가지가 무엇인가? 갑자기 물으니까 대답을 못한다. 계란 박사인데 송\*\*형제가 타고 다니는 차에 보면 ‘유정란’이라고 쓰여 있다.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다. 무정란은 계란은 계란인데 병아리가 안 나오고 유정란은 같은 달걀인데 병아리가 나온다. 왜 다른가? 씨가 있다. 좋은 말이다. 또 생명, 그것도 좋은 말이다. 누가 정곡을 찔러 보라. 왜 병아리가 나오는가? 연합, 생명의 연합이다. 연합으로 병아리가 나오는 것이다.

창세기부터 보라. 다 똑 같다.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는 것은 둘의 연합이다. 그것을 상징하려고 사람을 지을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 안에 비밀이 들어 있다. 2장에 가 보면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산 혼이 되더라는 이것도 연합을 말한다. 그 다음에 보라. 아담의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지었다.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지로다. 이것도 연합을 말한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이렇게 에베소서 5장에 가면 나온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기서 <본받아>라는 말을 잘못 생각하면 안 된다. <본받아>라는 말은 내가 행위를 따른다는 말이 아니고 <본받아>라는 말은 ‘같은 모양으로’라는 뜻이다. ‘호모이오(homoio)’라는 말인데 ‘호모(homo)’라는 말을 들어 봤을 것이다. 같은 것, ‘호모’, 같다는 뜻이다. ‘같은 모양으로,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하는 말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서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었다.** 나도 같은 모양이 아닌가? 거기서 나와 같은 모양이 보이지 않은가? 뛰어 내리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 안에 나

와 같은 모양이 있다. 그것을 본받으라고 번역을 하였다.

‘본받아’ 잘못하면 오해하기 쉽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본받아야 되는가?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고 같은 모양이다. 모양이 같다는 말이다.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 말이다.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다.

로마서 6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롬6:8).”** 이것은 만유를 포함한 죽음과 부활이다.

얼른 생각하면 예수라는 한 사람이 죽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 하였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범죄했다는 것이다.

한 사람 안에 모든 사람이 다 들어 있다.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내가 보는 것이다. 해놓은 것만 확실히 보면 나는 공유하는 것이다.

삼성 회장 아들은 금수저가 아닌가? 그는 태어나자마자 금 수저다. 그런데 자기는 모른다. 자기가 금수저인지 은수저인지 모른다. 태어나기를 금수저로 태어나버렸다. 이 \*\*씨가 그렇다. 태어나자마자 금수저로 태어나버렸다. 자기는 돈벌이 안 해도 부자가 된다. 금수저로 태어났으니까.

금수저라는 말이 아주 나쁜 말로 쓰였는데 우리 안에서는 정말 좋은 말이다. 우리는 지금 금수저로 태어났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금수저다. 내가 뭘 한 일이 있는가? 아무 것도 한 일이 없다. 내가 무슨 돈을 벌었는가? 내가 무슨 지혜를 얻었는가? 내가 어떤 의로움을 얻었는가? 내가 무슨 거룩함을 얻었는가? 내가 구속함을 얻었는가? 아무 것도 없었다.

태어나고 보니까 나는 금수저다. 누가 이것을 막겠는가? 이\*\*씨가 이OO씨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을 누가 막겠는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아무리 그것을 빼앗고 싶어도 빼앗을 수가 없다. 아니꼽다고 빼앗으려고 하지만 그것을 빼앗으면 나라가 안 된다.

**생명은 연합체다. 새 생명이라고 할 때 생명은 따로 이렇게 있는 생명이 아니고 연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전에 우리는 옛 생명이었을 때 나 혼자 있었다. 사실 그것도 알고 보면 연합체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다. 선악과와 연합한 생명이다. 그래서 삶을 가지고 활동할 때는 연합해서 활동한다. 어느 생명이든지 연합하지 않고서는 활동할 수가 없다.

아무도 정자를 생명이라고 하지 않는다. 난자를 생명이라고도 하지 않는다. 그냥 정자고, 난자다. 그래서 죽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다. 남자들에게서 수십억 개가 나오는데 다 버려 버린다. 그것이 생명 같으면 그렇게 버리면 벼락 맞는다. 그것이 생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용서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한 사람이 버린 정자 수가 얼마나 많은가?

**생명은 전부 연합체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혼자 수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홀로 독립하려고 수도한다. 아무 데도 관계되지 않고 정말로 홀로 서려고 그것을 위해서 시작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냥 무정란이 되는 것이다. 혼자 똑똑하니까 무정란이다. 둘이 합해서 똑똑하면 유정란이다. 둘이 합할 수 있는 생명, 그것이 진짜다. 홀로 존재하는 생명은 생명이 아니다.

이번에 송\*\*형제가 나에게 계란에 대해서 물어 보았다. 노른자가 두 개 있는 것이 있다. 쌍란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것은 병아리가 안 된다고 한다. 왜 안 되느냐고 나에게 물었다. 병아리 박사가 내게 와서 쌍란은 왜 병아리가 안 나오느냐고 물었다.

그것은 연합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다. 연합이 된 것이 생명이다. 생명이라는 말은 삶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 생명이 있는데 삶이 없다면 생명이라 할 수 없다. 삶이 있으니까 생명이라고 한다.

처음부터 보라. 흙과 생기가 합하니까 산 혼이 되었다. 산 혼으로 사는 것이다. 아담과 하와,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되었다.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니까 새 생명이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것이다.** 말로 하니까 얻은 것이지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나는 연합된 생명 안에 사는 것이다.

우리 교회가 신기한 것이 그것이다. 절간이나 도를 통하는데 가보면 우리 교회와는 분위기가 다르다. 절대로 조용해야 된다. 각자 따로따로 앉아야 된다. 거기는 전부 따로따로다.

우리 교회는 혼자 있으면 아무 할 말도 없고 재미도 없다. 많이 올수록 좋다. 왜냐하면 연합한 기쁨이 있기 때문이다. **연합으로 사는 것, 이것이 생명이다.** 혼자 있는 것은 정자와 똑 같은 것이다.

혼자 있다. 혼자 정말로 온전하게 하고 살고 있다. 아무리 온전하게 살고 있어도 그것은 무정란이고 있어도 정자만 따로 있는 것이다. 난자도 그렇다. 난자도 저 혼자 있으면 살아 있기는 살아 있는 데 사람이 안 된다. 너무 간단한데 진리가 담겨 있다.

수정란이라야 병아리가 된다. 우리는 날마다 볼 수 있는 일인데 수정란이 아닌 것은 병아리가 안 된다. 부화장에 가면 넓은 틀에다 계란을 놓아두고 온도를 40도로 올린다. 그렇게 해놓고 굴려주고 한다. 병아리가 나올 때 병아리가 안 나오는 달걀이 있다. 깨보면 꺾어 있다. 전문가들은 그것을 알아서 미리 골라내는데 혹시 있으면 썩어 버린다.

달걀이 생명이 연합이 안 되어서 그렇다. 생명의 연합이 안 된 것은 죽은 것이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부화장에 가보면 표가 난다. 딱 시간이 되면 병아리가 자기 입으로 쪼아서 나온다.

그런데 아무 것도 안 보이는 것은 불빛에 비춰보면 끓아서 시커멓다. 끓은 것을 골라 내는 것을 보고 도사라고 하는 것이다. 부화장에 가보면 끓은 달걀이다. 혼자 있을 때는 그냥 계란인데 부화장에 가보면 끓은 달걀이다. 40도 온도를 딱 맞춰보면 끓아 버린다. 수정란이라야 병아리가 된다. 송\*\*형제가 병아리 박사인데 내가 도사 앞에 주름 잡는 것 같다.

**연합! 어찌하든지 연합이 되어야 한다.** 연합이 되어야 수정란이 된다. 거기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는다. 우리가 원 위치로 돌아가면 죄가 없다. 원죄가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우리가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이다. 부활하면 우리는 사는 것이다. 오늘이 부활절이라면 우리는 부활 안에 사는 것이다. 내가 무슨 일을 해서 쏙 나온다는 그런 말이 아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온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는 자들은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와 함께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런 말을 해 놓았다. 이것은 상당히 시적인 말이고 암시적인 말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할 수가 없다.

**우리는 지금 부활 안에 산다.** 왜냐하면 새 생명 안에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옛 생명은 십자가에서 청산되었다. 혹시 내가 옛 생명을 사랑하고 살고 있는 것이 있거든 죽은 놈을 붙잡고 있는 것과 똑같다. 붙잡고 있으면 썩은 냄새밖에 더 나겠는가? 송장을 잡고 있으면 썩을 수밖에 없다.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썩을 수밖에 없다. 방법이 없다.

우리는 새 생명 안에 왔구나. 부활의 시대에 왔구나. 거기서 내가 살아야 한다. 새 생명 안에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연합하신 것이다.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할 수가 없다. 연합이 되어야 새 생명 안에 산다. 연합이 되어야 병아리가 된다. 병아리 삶을 살려면 연합이 되어야 한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끝이 없다. 또 시간을 오바했다. 밤에 이것을 줄이고 줄이느라 했는데 한 시간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안 됐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롬6:8).”**

한 번 다 같이 해 보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롬6:8).”** 아멘!

[ 기도 ]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돌고 돌아도 우리는 죽음을 실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쌓고 쌓아도 바벨탑 밖에 쌓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 놓고, 모든 것을 마련해 놓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당신이 만드신 모든 세계를 우리

안에 공유하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을 알고 그 안에서 행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